

금산사 미륵전 벽화에 대한 고찰

김창균 동국대학교(서울)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교수

목차

- I. 머리말
- II. 금산사 미륵전과 벽화
 - 1. 미륵전의 성격
 - 2. 미륵전의 벽화 현황
- III. 미륵전 벽화 내용 및 양식특징
 - 1. 미륵전 벽화 내용
 - 2. 미륵전 벽화의 양식특징
- IV. 미륵전 벽화의 편년
- V. 맺음말

국문초록

금산사 〈미륵전〉은 외부는 3층이나 내부는 한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각층마다 ‘대자보전’ ‘용화지회’ ‘미륵전’이라는 다른 이름의 편액이 걸려있다.

장엄 역할의 미륵전 벽화는 법당 출입 창호가 있는 1층과 2·3층 정면을 제외하고 외부 1·2·3층 포벽 및 중방벽에 거의 빠짐없이 그려져 있는데, 위치에 따라 소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각 층별 그림의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단, 2·3층은 건물 구조상 내부에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비해 1층은 내부 포벽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 1층의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고찰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각 층별 위치별로 그림솜씨가 약간 다름이 파악되었는데, 이는 곧 시기를 달리 하여 그려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미흡하나마 벽화에 대한 편년 또한 시도해보았다.

〈미륵전〉 1층의 경우에는 불도들이 직접 기도하는 공간으로서 내부 포벽에도 나한도를 비롯한 목죽도와 목란도, 수목산수와 화조도 등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중방벽은 건물 정면을 제외한 동·남·북 3면에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미륵전〉은 『미륵하생경』의 ‘용화삼회’를 바탕으로 하는 미륵하생 신앙을 확립하기 위하여 점찰교법을 펼치는 공간인 만큼 큰 의미는 하나일 수 있겠다. 그러나 각 층마다 각기 다른 이름의 편액이 걸려 있어 층에 따라 성격이 다르며 그림 또한 그에 걸맞게 그려졌다. 즉, 〈미륵전〉은 도솔천에 거주하는 자씨보살께서 석가불이 열반한 이후 이 세상에 내려와 화림원의 용화수 아래에서 3회에 걸친 법회를 연 후 깨우침을 얻어 미륵부처가 된 다음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하생신

양의 완성처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미륵전 내외 벽화의 경우 비록 시기적으로는 후대에 조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나마 각 층별에 따른 성격을 파악하는데 자료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포벽과 중방벽의 위치별 그림의 표현기법 및 양식특징에 따라 편년설정이 가능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 대자보전(大慈寶殿), 용화지회(龍華之會), 미륵전(彌勒殿)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 점찰교법(占察教法)

I. 머리말

김제 母岳山 남쪽 자락에 위치한 金山寺는 임란 이후 정유재란으로 인해 전소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전각만 23동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찰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方等戒壇(보물 제26호)을 비롯한 五層石塔(보물 제25호) 및 石造蓮花臺座(石蓮臺, 보물 제23호), 점판암제 六角多層塔(보물 제27호), 幢竿支柱(보물 제28호), 石燈(보물 제828호), 露柱(보물 제22호), 慧德王師眞應塔碑(보물 제24호) 등의 석조물과 함께 彌勒殿(국보 제62호), 大寂光殿, 大藏殿(보물 제827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미륵전>이라 호칭하고 있는 건물은 내부 통층 외부 3층의 구조로 이루어진 금산사의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각

층마다 〈大慈寶殿〉〈龍華之會〉〈彌勒殿〉이라는 다른 이름의 편액이 걸려있다.

장엄 역할의 미륵전 벽화는 법당 출입 窓戶가 있는 1층과 斜籠窓을 둔 2·3층 정면을 제외하고, 외부 1·2·3층 포벽 및 중방벽에 거의 빠짐없이 그려져 있는데 위치에 따라 소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층별로 성격을 달리 하고 있는 것과 함께 벽화 또한 각 층에 어울리는 주제를 선택하여 장엄했으리라 여겨지는 만큼, 각 층의 위치에 따른 그림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해본 다음 양식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 2·3층은 건물 구조상 내부에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비해 1층은 내부 포벽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 1층의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록 획일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각 층별, 위치별로 그림솜씨가 약간 다름이 파악되었는데, 이는 곧 미륵전의 연혁과 관련해볼 때 시기를 달리 하여 조성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미흡하나마 벽화에 대한 편년 또한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 금산사 미륵전과 벽화

1. 미륵전의 성격

금산사의 〈미륵전〉은 내부가 통층 구조를 이루는 3층 전각으로 국내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며, 1층은 〈大慈寶殿〉, 2층은 〈龍華之會〉, 3층은 〈彌勒殿〉이라는 이름의 편액이 걸려 있다(도 1 참조).



〈도 1〉 금산사 미륵전 전경

이렇듯 층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는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모두 다 미륵불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층 〈대자보전〉은 장차 미륵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慈氏菩薩께서 머무는 도솔천 꼭대기兜率天宮의 전각을 의미하며, 2층 〈용화지회〉는 대자보전에 머무는 자씨 미륵보살께서 석가불 열반 후 56억 7천만년이 지난 다음 세상에 내려와 미륵불이 되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龍華樹 아래 법석을 마련하여 세 번 법회를 연다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3층 〈미륵전〉은 용화지회 후 마침내 佛格을 얻어 세상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미륵부처가 된 미륵불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¹⁾

각 층마다 다른 편액을 달아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미륵전〉은 금산사를 상징함은 물론, 금산사의 창건 동기를 말해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산사는 초창이 불분명하기는 하나²⁾ 『占察經』을 바탕으로 교법을 펼친 占察法會³⁾ 중심의 ‘占察教法’ 즉, 참회불교의 창시자⁴⁾인 ‘眞表’에 의해 중창된 이후 법맥을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

찰로서 미륵불을 내세우는 미륵도량임을 알 수 있다.

‘진표’의 행적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卷4 ‘眞表傳簡’ 條와 ‘關東楓岳鉢淵藪石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⁵⁾, 이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진표전간’ 조의 내용을 보면 ‘진표는 완산주(지금의 全州) 만경현 사람으로 12세에 금산사 崇濟法師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仙溪山 不思議庵에 들어가 亡身懺法⁶⁾으로 고행을 하여 14일 만에 지장보살로부터 淨戒를 받았다(新羅 孝成王 4년 ; 740년). 그 후 다시 靈山寺(邊山 또는 楞伽山)에서 정진하여 미륵의 감응을 받아 占察經 2권과 證果簡子 189개를 얻었으며 금산에 내려와 매년 법석을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관동풍악발연수서기’에는 ‘진표율사는

1) <龍華三會>란 鳩摩羅什이 번역한 『彌勒下生經』 중의 내용으로서 도솔천의 미륵보살(자씨보살)이 翅頭末城(또는 鷄頭城) 華林園의 용화수 아래에서 깨우침을 얻은 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법회를 여는데 첫 법회 때는 96억 명이 아라한과를 얻고, 두 번째 법회 때는 94억 명이 아라한과를 얻으며, 세 번째 법회 때는 92억 명이 아라한과를 얻어 모두 282억 명이 구제받는다는 내용이다.

이기영, 『경전상에 나타난 미륵사상』, 법주사 미륵대불조성기념 학술대회 논총『미륵사상의 현대적 조명』, 법주사, 1990, p.116 참조.

2) 금산사의 창건에 대해 불명확하지만 『金山寺事蹟』(1921년)을 토대로 작성한 「미륵전 연혁」의 경우 백제 法王 원년인 600년을 초창으로 보고 있으나(『금산사 미륵전 벽화보존처리 보고서』, 전라북도·한국미술사학회, 1994, p.4),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 ‘762년 戒本과 簡子를 받은 후 금산사를 단시일 만에 완성하였고, 766년 미륵불상 봉안과 벽화를 조성.봉안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진표에 의해 762년-766년 사이에 창건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3) 占察法會에 대해서는 채인환, 『新羅 眞表律師 研究(Ⅲ)』懺悔戒法の 確立과 教化, 『佛教學報』 2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8, pp.39-63 참조바람.

4) 김영태,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 研究』, 『佛教學報』 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2, p.100 참조.

5) 진표의 행적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제4 ‘진표전간’ 조와 ‘관동풍악발연수서기’(『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眞表傳簡,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關東楓岳鉢淵藪石記)를 참조바람.

6) ‘亡身懺法’이란 몸을 부쉬 깨달음을 구하는 참회법을 말한다.

전주 碧骨郡 那山村 大井里 사람으로 12세에 출가하여 金山藪(금산사) 順濟法師에게 사미계를 수지하고 「供養次第秘法」 1권과 「占察善惡業報經」 2권을 전수받았으며, 또한 “미륵·지장 兩聖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하고 참회하여 成滿을 받아 세상에 널리 퍼뜨려라”는 교시를 받았다. 760년 불사의암에 들어가 3년간 미륵불전에 계법을 구하였으며, 다시 21일 기도 중 7일 만에 지장보살로부터 袈裟와 法鉢을 받았고 21일 만에 兜率天衆이 내려왔는데 地藏은 戒本을 주고 慈氏는 簡子를 주면서 “후에 大國王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날 것이다”고 예언하였다(762년). 교법을 받은 후 금산사를 세우려고 大淵津에 이르자 龍王이 8만 권속을 거느리고 나타나 玉袈裟를 바치고 함께 금산사에 이르니 며칠이 걸리지 않아 절이 완성되었다. 또 자씨가 하강하여 진표와 戒法을 받아 彌勒丈六像을 주성(764년)·봉안하였으며(766년), 금당 남벽에 미륵이 하생하여 수계하는 장면을 그렸다. 그 후 진표는 속리산(법주사)과 개골산(발연사)으로 가 점찰법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다.⁷⁾

위 두 기록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록을 통해 ‘진표율사’가 금산사와 관련을 맺고 ‘미륵’과 ‘지장보살’을 내세워 예경과 참회를 바탕으로 한 占察法會를 시행하였으며, 미륵장육존상을 조성하고 金堂 남벽에 하생한 미륵이 수계하는 장면을 그려 봉안했다고 함은 금산사가 『彌勒下生經』을 근본으로 한 下生信仰⁸⁾의 傳法地로서 주 법

7) 이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李丙燾, 修正版 原文兼譯註 『三國遺事』, 광조출판사, 1975, pp.408-415 및 문명대, 「法住寺磨崖彌勒·地藏菩薩浮彫像의 研究」 法相宗美術研究3, 『미술자료』 37, 1985, pp.43-45를 참조바람.

8) 미륵하생신앙의 기원 및 내용과 전개에 대해서는 강인선, 「高麗 後期 彌勒下生經變相圖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pp.4-44 참조.

당은 <미륵전>이었음이 파악된다. 즉, <미륵전>은 미륵도량 금산사의 금당으로서 미륵하생신앙을 바탕으로 한 점찰법회를 펼치는데 중심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

2. 미륵전의 벽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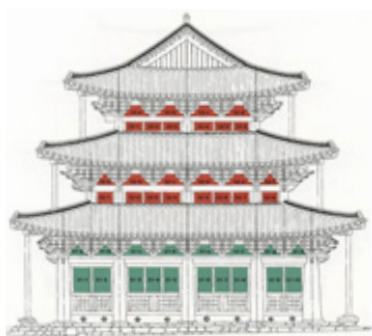
건물의 규모는 1층과 2층의 경우 정면 5칸에 측면 4칸이며, 3층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향 건물로서, 건물의 구조상 상향할수록 축소되어 칸 수 또한 각 층이 서로 달라야 할 것이나 1층과 2층 정면·측면의 칸 수는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평면의 경우 1층은 약 79평, 2층은 약 50평, 3층은 28평으로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된다.¹⁰⁾ 1층과 2층 칸 수의 경우 비록 수적으로는 동일하나 2층 좌우 협칸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추녀 선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기 위한 체감비율에 따른 처리라고 여겨진다.

공포의 수 역시 정면(서쪽)과 후면(동쪽)은 1층 11개, 2층 9개, 3층 7개이며, 양 측면(남·북쪽)은 1층 9개, 2층 7개, 3층 5개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 측면의 경우 포벽은 1층에 8, 8개, 2층에 6, 6개, 3층에 4, 4개를 두었다. 중방벽 역시 남·북쪽이 동일하게 1층에 3, 3, 2, 2개씩, 2층에 3, 3, 1, 1개씩, 그리고 3층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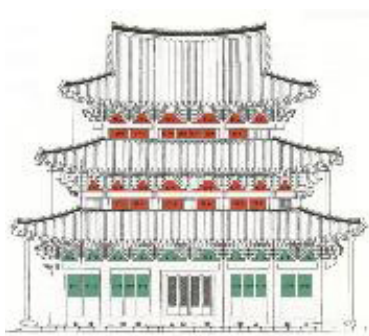
9) 이에 대해 홍윤식은 『삼국유사』 ‘진표전간’ 조는 彌勒上生信仰의 요소를 지닌 반면, ‘관동풍악발연수석기’ 조는 미륵도량으로서 下生信仰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다(홍윤식, 「미륵사상의 호형화와 그 신앙」 법주사 미륵대불조성기념 학술대회 논총 『미륵사상의 현대적 조명』, 법주사, 1990. p.185 참조.

10)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보고서』上, 김제시·한림보존테크, 2015. p.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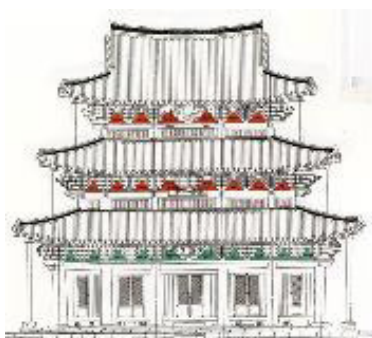
남쪽 6개, 북쪽 5개를 두어 비대칭을 이룬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방벽은 층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는데 비하여, 포벽의 경우 정면과 후면은 1층 각 10개, 2층 각 8개, 3층 각 6개, 좌우 측면 1층은 각 8개, 2층은 각 6개, 3층은 각 4개로 이루어져 일률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그림 1 참조).



남



동



서



북

〈그림 1〉 금산사 미륵전 도면

* 위 도면은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보고서』下, pp.421~424의 〈금산사 미륵전 도면〉을 인용하였음.

〈표 1〉 미륵전의 층별·위치별 벽체와 벽화 현황

구분	포벽화		중방벽화	비고
	외부	내부		
1층 (102점)	동 ; 10	동 ; 10	동 ; 10	중방벽 서쪽 ; 창 호
	남 ; 8	남 ; 8	남 ; 10	
	서 ; 10	서 ; 10	서 ; 0	
	북 ; 8	북 ; 8	북 ; 10	
	36	36	30	
2층 (50점)	동 ; 8		동 ; 6	주방벽 서쪽 ; 사룡창
	남 ; 6		남 ; 8	
	서 ; 8		서 ; 0	
	북 ; 6		북 ; 8	
	28		22	
3층 (38점)	동 ; 6		동 ; 6(5)	중방벽 서쪽 ; 사룡창
	남 ; 4		남 ; 6	
	서 ; 6(4)		서 ; 0	
	북 ; 4		북 ; 6(5)	
	20(18)		18(16)	
소계	84(82)	36	70(68)	
합계	120(118)		70(68)	190(186)

* 이 표는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보고서』 上, p.47의 표 8과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보고서』 下, pp.421~424의 〈금산사 미륵전 도면〉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안의 수는 1층~3층에 장엄된 실제 벽화 숫자임.

미륵전의 중방벽과 포벽 모두에는 벽화가 장엄되어 있는데 1층 포벽의 경우 내부에도 외부와 동일하게 36개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1층 102점(포벽 72점(내부 36점, 외부 36점), 중방벽 30점), 2층 50점(포벽 28점, 중방벽 22점), 3층 38점(포벽 20점, 중방벽 18점) 등 총 190개에 이른다. 그러나 3층 남·북쪽 중방벽의 경우 벽체는 각기 6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천상과 같이 긴 그림은 두 벽체를 한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 벽화의 수량은 186점 정도이다(표 1 참조).

Ⅲ. 미륵전 벽화 내용 및 양식특징

1. 미륵전 벽화 내용

앞의〈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륵전 벽화는 크게 포벽화와 중방 벽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벽화 내용은 如來圖를 비롯하여 菩薩圖, 羅漢圖, 四天王圖, 天神圖, 金剛力士圖, 飛天圖, 花鳥·花卉圖, 山水圖, 墨竹圖, 墨蘭圖 등으로 다양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포벽화는 1층 내부 포벽화 36점을 포함하여 모두 120(118)점으로 여래도 및 나한도와 보살도 위주에 화조도 및 묵죽도 등이 그려져 있다. 1층 내부 포벽화는 36점 중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나한도가 15점으로 미륵전 정면인 서쪽 포벽에 9점, 남·북쪽 포벽에 각각 3점씩 6점이 그려져 있으며, 후면인 동쪽 포벽에는 산수도와 화조도, 묵죽도와 묵란도 등 수묵으로 그린 사물 그림 21점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아 정면을 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와 동일한 수의 외부 포벽화는 정면향인 서쪽에 여래도 10점과 후면의 나한도 10점, 남쪽 포벽에 중앙의 보살도 4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장보살과 무독귀왕을 그려 세트화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쪽 포벽에는 중앙의 나한도(1점)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보살도 4점, 오른쪽에는 보살도 3점을 배치하였다.

〈표 2〉 1층 내부 포벽화 분포도

	?	나한	나한	나한	산수	산수	산수	화조	
나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40%;">서(정면)</div> <div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북</div> <div style="width: 40%;">동</div> </div>								산수
나한									산수
나한									산수
나한									산수
나한									목란
나한									화조
나한									화조
나한									산수
나한									목죽
산수									화조
	산수	나한	나한	나한	산수	산수	목죽	목죽	

포벽 아래쪽의 중방벽 그림은 후면인 동쪽에 금강역사 10점을 그린 다음 남쪽에는 좌우 끝 쪽에 사천왕상 2구씩 4구를 배치한 뒤 안 쪽으로 위태천과 비천 및 보살, 동자도를 그렸다. 그리고 북쪽 벽에는 좌우 끝에 금강역사를 2구씩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관음보살 및 선재동자와 용녀, 지장보살 및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배치하였다. 이렇듯 중방벽에 사천왕 및 금강역사와 위태천 등 호위신중을 배치 함으로서 마치 하생하는 미륵보살을 호위하는 듯한 구성을 보인다 (표 3 참조).

2층의 경우 포벽화는 모두 나한상으로 배치한 다음 중방벽에는 산수도를 비롯하여 화조도와 연화도, 화훼도 등 좋은 풍광과 꽃 그림을 그려 장엄함으로서 미륵보살의 용화법회를 찬양하는 듯하다(표 4 참조).

〈표 3〉 1층 내·외부 포벽화 및 증방벽화 분포도

	금강역사	금강역사	선재동자	관음보살	응녀	도명존자	지장보살	무독귀왕	금강역사	금강역사																																																																																								
	보살	보살	보살	나한		보살	보살	보살	보살																																																																																									
여래	<table><tr><td></td><td></td><td></td><td>?</td><td>나한</td><td>나한</td><td>나한</td><td>산수</td><td>산수</td><td>산수</td><td>화조</td><td></td></tr><tr><td></td><td>나한</td><td colspan="8" rowspan="2">북</td><td>화조</td><td></td></tr><tr><td></td><td>나한</td><td>목죽</td><td></td></tr><tr><td></td><td>나한</td><td colspan="8" rowspan="2">서(정면)</td><td>산수</td><td></td></tr><tr><td></td><td>나한</td><td>화조</td><td></td></tr><tr><td></td><td>나한</td><td colspan="8" rowspan="2">동</td><td>화조</td><td></td></tr><tr><td></td><td>나한</td><td>목란</td><td></td></tr><tr><td></td><td>나한</td><td colspan="8" rowspan="2">남</td><td>산수</td><td></td></tr><tr><td></td><td>나한</td><td>산수</td><td></td></tr><tr><td></td><td>산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목죽</td><td></td></tr></table>													?	나한	나한	나한	산수	산수	산수	화조			나한	북								화조			나한	목죽			나한	서(정면)								산수			나한	화조			나한	동								화조			나한	목란			나한	남								산수			나한	산수			산수							목죽		나한	금강역사
													?	나한	나한	나한	산수	산수	산수	화조																																																																														
											나한	북								화조																																																																														
											나한									목죽																																																																														
											나한	서(정면)								산수																																																																														
											나한									화조																																																																														
											나한	동								화조																																																																														
											나한									목란																																																																														
											나한	남								산수																																																																														
											나한									산수																																																																														
	산수							목죽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나한	금강역사																																																																																						
여래																																																																																																		

〈표 4〉 2층 포벽화 및 증방벽화 분포도

	산수도	풍경도	화조도	산수도	화훼도	산수도	연화도	풍경도		
	나한	나한		나한	나한		나한	나한		
나한	북 동 서(정면) 남								나한	
나한									나한	화조도
나한									나한	풍경도
나한									나한	화훼도
나한									나한	산수도
나한									나한	화조도
나한									나한	풍경도
나한									나한	
	나한	나한		나한	나한		나한	나한		
	산수도	풍경도	연화도	풍경도	화훼도	산수도	화조도	산수도		

미륵전의 맨 위층인 3층은 〈미륵전〉이라는 편액과 같이 미륵불의 세계로서 포벽의 경우 미륵전의 정면인 서쪽과 후면에는 여래도를 배열하고, 남쪽과 북쪽에는 신통력 있고 자유분방한 모습의 나한 모습을 그려 놓았다. 그리고 그 아래쪽 중방벽에는 미륵불 세계를 찬탄하기라도 하듯 주악비천상을 위시하여 꽃그림을 그려 장엄하였다 (표 5 참조).

〈표 5〉 3층 포벽화 및 중방벽화 분포도

		화훼도		화훼도		화훼도		화훼도											
		나한		나한		나한		나한											
여래		북 서(정면) 동 남								여래									
여래										여래		노승도							
편액										여래		비천							
										여래		비천도							
여래										여래		매조도							
여래										여래		매화도							
										나한		나한		나한		나한			
										풍경도		화조도		노승도		풍경도			

이상의 그림 분포를 통해본 결과 금산사 미륵전의 포벽화 및 중방벽화는 단순히 법당을 꾸미기 위함보다는 하생한 미륵보살을 호위하고, 용화삼회를 통해 미륵불이 되어 석가모니불께서 다 구제하지 못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미륵불 세계를 찬양·찬탄하고 찬미하기 위한 역할의 莊嚴畵라고 해도 좋을 듯싶다.

2. 미륵전 벽화의 양식특징

미륵전 벽화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2·3층 각 층별에 따라서 포벽화와 중방벽화로 나누어지며, 구분에 따른 벽면의 형태와 층별 성격에 걸맞게 그림을 그려 장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벽화의 양식특징을 파악하는데 각 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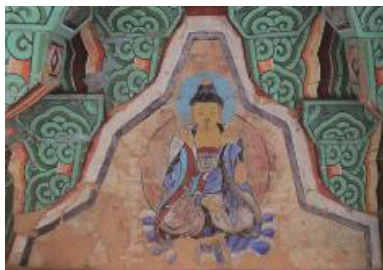
1) 1층

1층은 〈大慈寶殿〉으로 도솔천에서 내려온 자씨보살인 미륵보살의 세계로서 포벽화는 여래도와 나한 및 보살도 위주이며, 중방벽화는 호위신중인 사천왕 및 금강역사 위주로서 여래와 나한님들이 보살펴 주고 호위신중들이 보호하는 내용으로 포벽화와 중방벽으로 구분하여 양식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1) 포벽화

외부 포벽화는 정면인 서쪽의 여래도와 후면의 나한도를 중심으로 각 보살도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지장보살과 무독귀왕 등과 같은 세트화 개념의 도상 또한 엿보인다.

정면인 서쪽 포벽 여래도의 경우 설법인, 아미타인, 지권인, 항마촉지인, 약기인을 지은 5여래가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다.



〈도 2〉 서쪽 포벽 1 설법인 불좌상



〈도 3〉 서쪽 포벽 3 지권인 불좌상

청색 연화좌(도 2) 또는 대의자락이 뒤덮여 있는(도 3)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오른발을 왼 무릎 위에 올린 이른바 길상좌를 하였으며, 얼굴은 둥근 형태로 원만상이나 상호는 다소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신체는 어깨가 넓게 벌어진 건장한 체구에 양 어깨를 다 덮은 通肩衣를 착용하였으며, 무릎 아래로 길게 늘어진 法衣 자락을 보면 청색과 양록 계열의 색채를 많이 사용하여 채색하였다. 머리는 굽어 보는 듯 약간 커지고 짧아진 목에 三道 표현이 뚜렷하며, 광배는 원형으로 머리 광배와 몸 광배를 구비하였다. 머리 광배는 연하고 밝은 하늘색 계열의 색을 보이며, 몸 광배는 맑은 적색으로 내부에 구불구불한 선으로 光線을 나타내었다.

뒷면 동쪽 포벽의 나한도는 深山幽谷을 배경으로 신통력을 발휘하여 하늘의 龍을 희롱하거나(도 4) 또는 향을 피워놓고 기도를 하는 모습, 그리고 奇岩怪石에 걸터앉아 참선하거나 상념에 잠겨있는 모습, 꽃을 감상하고 보살피거나(도 5) 동물(토끼)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듯 한가로운 모습 등을 자유롭게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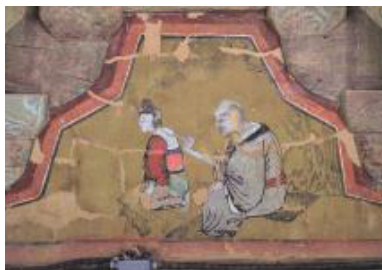
〈도 4〉 동쪽 포벽 1 나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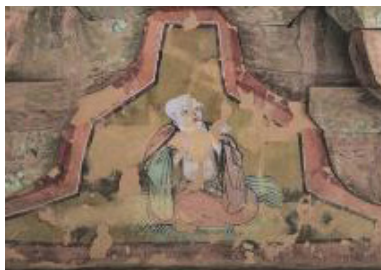
〈도 5〉 동쪽 포벽 2 나한도

그러나 나한도 역시 자세가 다소 어색하고 표현력이 뒤떨어지며, 색채 또한 양록 계열의 색과 갈색 계열의 적색 및 청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면의 여래도와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세기 초반 또는 20세기 전반 경에 보이는 특징들로 1층 포벽화의 조성시기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에 비해 내부 포벽화는 나한도 15점과 산수 및 대나무, 화조와 난 등 21점으로 나한도의 경우는 채색화이며, 산수 및 대나무와 화조, 난 등은 모두 수묵화이다.



〈도 6〉 내부 남쪽 포벽 5 나한도



〈도 7〉 내부 서쪽 포벽 4 나한도



〈도 8〉 내부 동쪽 포벽 2 목죽도



〈도 9〉 내부 동쪽 포벽 6 목란도

채색 나한도는 수묵으로 배경을 처리한 뒤 해학적인 모습의 나한상(도 6)들만 채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양록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시기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록 계열의 색채는 후대에 덧칠한 흔적이 발견되고 수묵으로 처리한 배경(도 7)이 수묵산수 및 목죽, 목란 등과 유사한 솜씨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부 포벽화와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묵화는 먹만 사용하여 그린 산수도와 목죽도, 목란도, 화조도 등으로 세밀하면서도 강한 필치를 보인다. 특히 목죽도(도 8) 및 목란도(도 9)의 표현을 보면 빠르고 활달한 붓놀림이 엿보이면서도 날아드는 새와 대나무와 난 등의 대상물에 대한 사실적 표현이 돋보인다. 이렇듯 힘차고 빠른 運筆과 사실적인 표현력은 미륵전 벽화 중에서도 가장 작품성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앞선다고 하겠다.

(2) 중방벽화

중방벽 그림은 뒷면인 동쪽에 금강역사 10점, 남쪽에 사천왕상 4구와 위태천, 비천 및 보살, 동자도를 그리고, 북쪽벽에는 금강역사 4구와 관음보살 및 선재동자와 용녀, 지장보살 및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등 호위신중 위주로 그렸다.

동벽 전체에 그려진 금강역사상은 지킴이로서의 강인함을 보이기도 하듯 분노상의 얼굴에 근육질의 신체를 하고서 검 또는 도끼를 지물로 들고 있거나(도 10), 맨 손으로 공격 또는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남쪽 벽의 사천왕상 역시 불법 수호의 무장답게 분노상의 얼굴에 힘이 넘쳐나는 매우 활달한 자세로 머리에 관을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도 11), 각기 지물로는 당과 보탑, 용과 화염보주, 검, 비파를 들었다.

또한 검을 파지한 위태천과 합장하고 있거나 공양물 및 여의주를



〈도 10〉 동쪽 중방벽 1



〈도 11〉 남쪽 중방벽 1



〈도 12〉 북쪽 중방벽 1

공양물로 받쳐 든 보살, 연꽃가지를 든 동자상의 표현에 있어 머리 광배와 갑옷 및 천의자락, 신발에 양록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고, 지물 및 갑옷 윤곽선, 지물 손잡이 등에 석간주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벽의 중방벽화에 보이는 금강역사 역시 갑옷을 입고 검 또는 바위를 들어 불법 수호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12), 남벽의 사천왕 및 금강역사상, 동벽의 금강역사상과 같은 양록 계열 색채와 석간주 계열 색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함께 그려진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용녀, 그리고 지장보살상 및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의 표현에도 동일한 색채 사용과 표현력으로 보아 동시기 조성 작품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2층

2층은 〈龍華之會〉라는 편액이 걸려있는 곳으로 미륵보살이 범회를 여는 도량으로서 이를 찬양하는 의미의 그림 위주임을 알 수 있다.

포벽의 경우는 4면을 빙 둘러서 모두 나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중방벽은 범회 참석자들의 환희심을 일으키게 하는 장엄화로서 꽃과 새, 경치 좋은 풍광 등을 배치하고 있다.

그림이 그려진 두 곳은 각기 의미가 다른 만큼 포벽화와 중방벽화로 나누어서 각기 양식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포벽화

2층 포벽화는 모두 나한도로서 동·서쪽 포벽에 각각 8점, 남·북쪽 포벽에 각각 6점을 그려 모두 28점이다.

이미 깨우침에 이른 불제자 나한은 석가불 열반 후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의 無佛時代에 중생제도를 위임받은 분들로, 현생에서 佛을 대신하여 중생제도를 임무로 하였던 나한들이야 말로 미륵보살이 하생하여 미륵불이 되어 못다 구제된 중생들을 구하고자 하는 자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찬양할 일이었다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로서 2층 포벽 전체를 나한도로 장엄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며, 대체적인 나한들의 표정 또한 1·3층의 나한상들보다 환희심 가득한 미소 띤 얼굴모습을 하였다.

심산유곡을 배경으로 바위에 걸터앉아 유유자적하거나 또는 金剛鈴이나 金剛杵를 들고 의식을 행하는 모습(도 13), 합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소나무 그늘아래 앉아 경전을 읽고 환희에 찬 여유로운 모습(도 14) 등을 나타내었는데 표현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청색 및 양록 계열 색채와 석간주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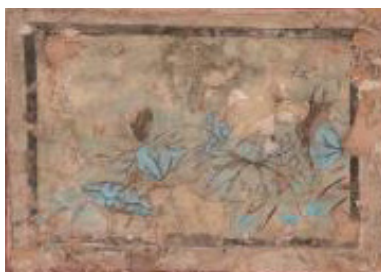
〈도 13〉 북쪽 포벽 1 나한도



〈도 14〉 서쪽 포벽 1 나한도



〈도 15〉 동쪽 중방벽 5 풍경도



〈도 16〉 남쪽 중방벽 3 연화도

(2) 중방벽화

중방벽화는 좌우 끝부분의 벽에 사룡창을 설치하여 중앙 부분에 6점의 벽화만 그려져 있는 동쪽 벽 이외 남·북쪽 벽에는 각각 8점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다.

동·남·북벽 그림은 깊은 산속에 사찰이 보이는 풍광 및 웅기종기 초가가 모여 있는 한적한 마을 풍경(도 15), 멀리 포구가 보이는 바닷가 경치, 한 줄기 폭포가 시원스레 흘러내리는 풍광의 산수, 산속 바위 주변의 들꽃에 나비가 날아드는 장면, 절지형 꽃가지에 앉아 있는 새, 연못에 피어난 연꽃(도 16) 등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그림으로 장엄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벽체 중앙에 주된 장면과 대상물을 표현하고 채색하였는데, 기와집 및 초가와 배 등의 경물 표현에 있어 형태와 비례가 다소 어긋남은 물론 산과 수목 표현에 원근감이 배제되어 있으며 채색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청색과 양록 계열 색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파악된다.

특히 양록 계열 색채가 그림의 배경이나 산의 표현, 나무 잎사귀

및 바위, 물, 연꽃 잎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3)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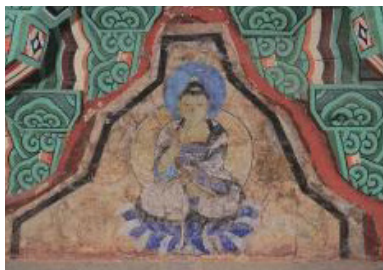
〈彌勒殿〉 편액이 걸려 있어 미륵불의 세계임이 짐작되는 3층은 포벽화 18점 중방벽화 16점으로, 포벽화의 경우 전·후면인 동·서 벽에는 여래도가 그려져 있으며 좌·우면인 남·북 벽에는 나한도를 배열하였다.

중방벽에는 동쪽 중앙의 비천도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화훼도와 풍경도, 노승도와 매화도와 매조도를 그려 장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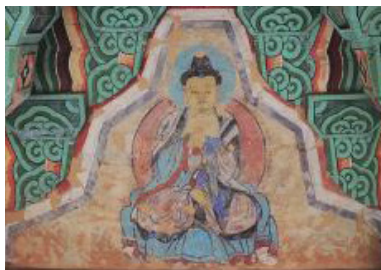
(1) 포벽화

정면인 서쪽 벽에 4점 동쪽 벽에 6점 등 10점의 여래도와 남·북 벽에 각각 4점씩 8점의 나한도가 그려져 있다.

동·서 벽의 여래도는 1층 포벽화 중의 여래도와는 다르게 모두 靑蓮座 위에 걸가부좌한 자세로 길상좌를 하고 있으며, 지권인과 약기인 佛을 반복하여 배치하였다. 둥근 모양의 양록색 머리 광배와 석간주 계열의 적색 몸 광배를 구비하였으며, 通肩式 범의에는 청색과 양록 계열 색채가 사용되어 20세기 초-전반 경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머리 광배와 上衣 및 內衣에 칠해진 양록색의 경우 본래의 청색 위에 덧칠한 흔적이 엿보이고, 턱이 둥글어 가름해진 얼굴에 단정한 이목구비의 표현과 원만형의 신체 형태(도 17)로 보아 1층 여래상(도 18)과는 시기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도 17〉 동쪽 포벽 2 지권인 불좌상



〈도 18〉 1층 서쪽 포벽 3 지권인 불좌상

남·북 벽의 나한도는 1·2·3층 포벽 나한도 가운데 정면향보다는 좌우 측면향 坐勢에 화문석(도 19) 또는 바위나 나무 등결(도 20)과 평상에 앉아 지금 막 무엇인가를 행하는 듯이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자세를 취하여 움직임이 가장 많이 엿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색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1-3층 벽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청색과 양록 계열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점은 전형적으로 20세기 초 이후 20세기 전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9〉 남쪽 포벽 1 나한도



〈도 20〉 북쪽 포벽 4 나한도



〈도 21〉 동쪽 중방벽 4 꽃을 뿌리는 천인도

(2) 중방벽화

3층 중방벽화는 동쪽 벽의 飛天圖를 위시하여 전면에 걸쳐 장엄되어 있는 꽃그림으로 미륵불이 내려오심을 찬양·찬탄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벽 중앙의 비천도는 꽃을 뿌리며 날고 있는 천인도(도 21)와 이와 마주하여 악기를 연주하면서 날고 있는 주악비천도(도 22)로서, 정면향을 하고 비행하는 주악천인상은 구획된 한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꽃을 뿌리며 나는 천인상은 특성상 횡으로 길게 표현하여 두 벽을 다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 22〉 동쪽 중방벽 3 주악비천도



〈도 23〉 장미화 모양 꽃그림(북쪽 중방벽 4 + 북쪽 중방벽 5)

이와 같이 횡으로 길게 그려 두 벽을 차지하는 경우는 3층 중방벽 화에서만 볼 수 있는데, 절지형 梅花圖 · 梅鳥圖, 老松圖, 花鳥圖, 장미화 같은 덩굴형 꽃그림(도 23)에서 나타나 더욱 장식적임이 느껴진다.

중방벽화 역시 배경이나 꽃과 나무 잎사귀, 비천 天衣자락에 양록 계열 색채가 사용되고, 꽃을 표현하는데 색 대비와 바름기법이 심하게 보이는 점은 20세기 초-전반 경의 전형적인 흐름으로 여겨진다.

비천도 천의 자락의 색채가 양록인 점으로 보아서는 조성시기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턱이 가름해진 얼굴 형태나 유연한 신체 표현으로 보아 꽃그림 및 화조도와 노송도와는 시기적인 차이가 파악된다.

IV. 미륵전 벽화의 편년

미륵전 벽화는 벽화 조성 솜씨 및 표현기법과 채색 사용으로 미루어 보아 크게 3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시기는 1층 내부 포벽화, 제2시기는 3층 동·서 포벽의 여래도 및 남쪽 중방벽의 비천도, 그리고 제3시기는 3층 포벽 여래도를 제외한 1층으로부터 3층에 이르기까지의 포벽화 및 중방벽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¹¹⁾

제1시기는 19세기 중반-후반으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벽화는 1층 내부 포벽화로서, 수목담채 기법의 묵죽·묵란도와 화조도, 채색을 가한 나한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목의 산수도와 묵죽도, 묵란도, 화조도 등을 살펴보면 섬세하면서도 빠르고 활달한 필치를 볼 수 있는데 묵죽도 및 묵란도의 경우는 붓놀림이 세련되었으면서도 새와 대나무, 난을 표현하는데 사실성이 돋보인다. 농묵으로 예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한 죽엽과 난, 새를 통해 보이는 필치는 17-18세기 묵죽도 이후 계승되어 오는 것으로 미륵전 벽화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채색 나한도의 경우를 보면 나한상들에 채용되어 사용한 양록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으나 후에 덧칠

11) 벽화의 표현기법 및 채색 특징에 따른 3시기는 『金山寺事蹟』(1921년)을 근거로 작성한 금산사 연혁 및 미륵전 연혁(『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보고서』上, 김제시·한림보존테크, 2015, pp.40-42 및 『금산사 미륵전 벽화보존처리 보고서』, 전라북도·한국미술학회, 1994, p.4)을 참조하여 제1시기는 1863년-1897년에 이르는 동안 龍溪大師에 의해 중수되었던 시기인 19세기 중반-후반으로, 제2시기는 1926년 金湖大師에 의해 중수된 시기인 20세기 초반으로, 제3시기는 1934년-1938년 成烈大師에 의해 중창된 때인 20세기 전반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한 흔적이 나타나고, 수묵으로 처리한 배경의 묵법이 수묵산수도와 묵죽도, 묵란도 등과 동일한 솜씨인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20세기 초반-20세기 전반 경의 특징을 보이는 외부 포벽화와는 다소 시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시기는 20세기 초반 경으로 3층 동·서 포벽화인 여래도와 남쪽 중방벽 중앙의 비천도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청색 연화대좌 위에 오른 발을 왼 무릎 위로 올리고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는 여래도는 지권인과 약기인을 지은 佛로서 양륙 계열 색채의 머리 광배와 적색 계열의 몸 광배를 구비하였다. 법의는 通肩式으로 청색과 양륙이 사용되어 20세기 초-전반 경의 전형을 보인다. 그러나 양륙 계열 색채의 경우 청색 위에 덧칠하였음이 확인되고, 턱이 가름해진 형태의 얼굴에 이목구비의 표현이 단정하고 적당히 벌어진 원만한 신체로 보아 1층 외부 포벽의 여래상보다는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천도 역시 천의 자락에 양륙 계열 색채가 채용된 것으로 보아서는 조성시기가 보다 하향할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가름해진 턱으로 둥글어진 얼굴에 유연한 신체 표현 등의 특징은, 19세기 후반 추정의 완주 위봉사 보광전 중방벽의 비천도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아 20세기 초반 경 조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제3시기는 20세기 전반 경으로 제2시기 벽화를 제외한 나머지 벽화, 즉, 3층 동·서 포벽화인 여래도와 중방벽 중앙의 비천도를 제외하고 1층부터 3층에 이르는 외부 포벽화와 중방벽화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 시기의 전형적인 특징은 비대해진 신체로 형태가 날렵하지 못하고, 청색과 양륙 계열 색채 및 석간주 계열의 적색을 채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포벽화의 경우 1층 서쪽 포벽 여래도

를 보면 어깨가 넓게 벌어진 큰 체구에 연화좌를 덮어 길게 흘러내린 헐렁한 대의자락으로 둔중함이 느껴지며, 색채 또한 대의와 상의 및 내의 전반에 걸쳐 청색과 양록이 채색됨으로서 20세기 전반 경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층 포벽의 여래도 역시 상의 형태와 사용된 색채가 1층 포벽 여래도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나한도 또한 1층 내부 포벽의 나한도와 달리 신체 표현이 어색하고 경직되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 역시 청색과 양록을 전반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주변의 구름표현에 있어서도 바름을 심하게 가하는 등 20세기 전반 경 이후의 특징을 보인다.

중방벽화 또한 3층 동벽 중앙부의 비천도 2점을 제외한 나머지 벽화는 모두 일시에 조성한 듯 청색과 양록이 주조색을 이루며 색 대비가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1층 중방벽의 사천왕 및 금강역사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호법 신중으로서의 강인함을 보이기 위하여 분노형의 얼굴을 하고 근육질 신체에 음영을 가한 표현기법, 갑옷과 천의자락에 청색 및 양록을 채용한 점 등은 20세기 전반 경 이후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¹²⁾

12) 미륵전 벽화에 대해 1960년대에 조성하였다고 전하기도 하나 3층 벽화에 6·25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 병사의 낙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950년 이전에는 이미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표현기법 및 채색의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20세기 전반인 1930년대에는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금산사 〈미륵전〉은 『삼국유사』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미륵도량으로서의 금산사를 대표하는 중심 법당인 금당 역할을 하는 전각으로, 전각에 봉안된 미륵부처의 세계를 찬양·찬미하는 의미의 벽화가 전 층에 걸쳐 장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륵전〉은 외부 3층 내부 통층 구조를 이루어 2·3층 내부에는 벽화를 그릴 수 없는 건물로 1·2·3층 모두 외부 포벽과 중방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층의 경우에는 불도들이 직접 미륵부처를 대하며 기도하는 공간으로서 내부 포벽에도 나한도를 비롯한 목죽도와 목란도, 수목산수와 화조도 등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중방벽은 건물의 전면부인 서쪽 면에만 창호 및 사롱창을 설치한 관계로 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았을 뿐, 동·남·북 3면에는 그림이 남아 있어, 포벽과 중방벽을 합하여 모두 186점이나 되는 많은 양의 그림이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미륵전〉은 『미륵하생경』의 『용화삼회』를 바탕으로 하는 미륵하생신앙을 확립하기 위하여 점찰교법을 펼치는 공간인 만큼 큰 의미는 하나일 수 있겠으나, 3층의 각 층마다 각기 다른 이름의 편액이 걸려있어 층에 따라 다르게 성격지어 짐과 함께 그림 또한 그에 걸맞게 그려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미륵전〉은 도솔천에 거주하는 자씨보살이 석가불이 열반한 이후 먼 훗날 이 세상에 내려와 화림원 용화수 아래에서 3회에 걸친 법회를 연 다음 깨우침을 얻어 미륵부처가 되어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하생신앙의 완성처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미륵전 벽화의 경우 비록 시기적으로 후대에 조성되었으며 많은 손상이 있다고는 할지라도 어느 정도나마 각 층별에 따른 성격을 파

악하는데 자료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포벽과 중방벽의 위치별 그림의 표현기법 및 양식특징에 따라 편년설정이 가능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彌勒下生經』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關東楓岳 鉢淵藪石記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眞表傳簡

『金山寺事蹟』, 1921년

『금산사 미륵전 벽화보존처리 보고서』, 전라북도 · 한국미술사학회, 1994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보고서』 上, 김제시 · 한림보존테크, 2015

- 강인선, 「高麗 後期 彌勒下生經變相圖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영태,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 研究」, 『佛敎學報』 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2
- 문명대, 「法住寺磨崖彌勒 · 地藏菩薩浮彫像의 研究」法相宗美術研究3, 『미술자료』 37, 국립중앙박물관, 1985
- 이기영, 「경전상에 나타난 미륵사상」법주사 미륵대불 조성기념 학술대회 논총, 『미륵사상의 현대적 조명』, 법주사, 1990
- 채인환, 「新羅 眞表律師 研究(Ⅲ)」懺悔戒法の 確立과 敎化, 『佛敎學報』 2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8
- 홍윤식, 「미륵사상의 조형화와 그 신앙」법주사 미륵대불 조성기념 학술대회 논총, 『미륵사상의 현대적 조명』, 법주사, 1990

A Study on the Murals Painting of Maitreya Hall in Geumsansa-Temple

Kim, Chang Kyun Dongguk University

Maitreya Hall(彌勒殿) in Geumsan-sa Temple is a building comprised of one storied on the inside and three storied on the outside. Hung on each floor are three inscribed boards of the floors' titles : Daejabojeon(大慈寶殿), Yonghwajeehoe(龍華之會), and Mireukjeon(彌勒殿).

The Murals Painting of Maitreya Hall are drawn on the entirety of its walls, also known as shell walls, found between the pillars of the roof, and on the main walls, also known as middle walls, standing underneath the eaves, except for those on the front side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floors where the entrance windows and doors are placed. The material of the murals seems to differ by location, so this study examines the subject and contents of each floor's paintings. However, the inner wall of the second floor appears to be impossible to paint due to its architectural structure, and thus remains unpainted, whereas that of the first floor is painted. The paintings on the first floor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ainting techniques on each floor slightly differ, which demonstrates that the murals were drawn in different time period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record the chronology of the murals, albeit in acknowledgement of its limitations.

The first floor of the Maitreya Hall is a prayer room for temple-goers. The shell wall adorns a painting of Buddha's disciples, and black-and-white ink paintings of bamboos, orchids, landscapes, birds and flowers. Many murals are drawn on the east, south, and north sides of the middle wall, except that which is on the front side of the hall.

Maitreya Hall serves one important purpose: to practice Jeomchal-gyobeop(占察教法; Buddhist fortunetelling), in order to establish a belief based on Mireuk Hasaeng-gyeong(彌勒下生經) scriptures that Maitreya will come down to the world, become Buddha, and save humankind. However, the floors have different titles and inscribed boards that signify different characters, and the paintings are drawn to match each floor's character. In other words, Maitreya Hall represents the completion of faith that after Sakyamuni's nirvana, Bodhisattva will come down to the world from the sky, hold three ceremonies under Yonghwa Tree(龍華樹) in Hwarim Garden(華林園), reach nirvana, become Maitreya, and redeem humankind.

In the case of mural paintings inside and outside of the Maitreya Hall, even if these were constructed at a later period, their significance as data lies in figuring out the characters of each floor level to a certain extent. This study also holds significance that the recording of chronology is possible based on the technique and form of Murals Painting on

different locations of shell and middle walls.

Keywords : Daejabojeon(大慈寶殿), Yonghwajeohoe(龍華之會),
Maitreya Hall(彌勒殿), MireukHasaeng-gyeong(彌勒下生經),
Jeomchalgyobeop(占察教法)

